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 | | 일 시 | 2018.12.24.(화) 10:00 |
| | | 장 소 | 본부관 311호 |
| 참석위원 | 최준수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오지웅, 손진욱, 정성훈 (이상 7명) | | |
| 업무지원 | 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| | |
| 불참위원 | 없음 | | |
| 의 제 |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 | | |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.

2.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12월 21일(금) 교육부에서는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을 2.25%로 발표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검토한 학부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학생 수업료와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하며, 대학원 수업료는 1.75% 인상(안)을 제시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학생의 입학금도 동결하는 것인지 질의함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부 학생의 입학금은 2017년 입학금 대비 매년 20%씩 인하할 계획이며, 이는 학부 외국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. 이에 따라 2019학년도 학부 외국인 학생 입학금은 2017학년도 대비 40% 인하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학생 등록금 관련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학생 측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.
- 대학원 수업료 인상률을 1.75%로 정한 근거에 대해 질의함.
- 아울러 2017학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출 예산액 대비 지출 결산액이 100%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학원 수업료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 상한보다 더 많이 인상해야하는 상황이지만,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과 대학원 수업료 인상률은 대체로 0.5%p 정도의 차이를 두어 왔기에 이를 감안한 것임.
- 지출 예산 및 수입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본예산 대비 가결산의 성격으로 정확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최종 결산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.
- 최종 결산에서 수입이 예산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지출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결산될 수는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환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남을 수도 있어 미사용이월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지출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다고 하여 그만큼의 금액이 남는다고 할 수는 없음.
-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책정(안) 근거 자료를 배포하고, 간사의 간략한 설명을 부탁함.

■ 간 사

- 물가상승, 최저임금 인상 및 입학금 수입 감소 등 2019학년도 추가 비용 발생 요

인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해야할 금액에 대해 설명함.

- 최소한 입학금 수입 감소분만큼은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관리운영비 증가를 예상하였는데, 소비자 물가에는 식료품 인상률이 큰 비중을 차지함. 대학에서는 식료품에 대한 비용 지출이 크지 않으므로 물가상승률이 과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질의함.
- 지난 회의에서 학부 입학금 단계적 인하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국인 학생 및 평생교육원 수입을 확충하겠다고 하였는데, 추가 비용 발생 요인으로 입학금 수입 감소를 다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물가상승률 중 대학에서 소요되는 부분만을 골라낼 수는 없는 만큼,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.
- 외국인 학생 및 평생교육원 수입 확충을 위해 대학이 노력하고 있으나, 반드시 수입이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이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최근 대학원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대해 질의하고, 대학원 수업료 1.75%인상만으로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수입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현실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모두 채우기는 힘든 상황이며, 학생을 조금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대학원 간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학생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.
-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,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고 있음. 이에 학교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수입 부족액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 그밖에 전기료 절약 등 학생들의 동참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수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는 대학원생 지원이 가능함.

■ 위원장

- 신설 대학원 및 학과에 대한 등록금 책정도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함. 특수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신설 및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골프전공 신설에 따른 등록금을 책정해야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골프전공은 기존 체육학과 수업료에서 실습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며,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은 유사 전공인 경영대학원 빅데이터 전공의 등록금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체육학과 골프전공의 경우, 실습비용을 포함하여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 1.75%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.
- 아울러 신설 대학원 등록금 책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기존 체육학과 수업료에서 1.75%를 인상한 금액에 실습비용이 추가되는 것임.
-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및 체육학과 골프전공 관련 자료를 학생 측에 전달함.

=====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함 =====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7년 물가상승률이 1.9%였음에도 2018학년도 대학원 수업료는 1.0%만 인상한 점, 그리고 2018년 물가상승률이 1.6%인 점을 감안하면, 2019학년도 대학원 수업료 1.75% 인상은 높다고 판단됨.
- 학생 측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원 수업료 인상률을 1.3%로 제시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꼭 물가상승률만 고려한 것은 아님.

- 학교의 재정 상황은 매년 누적되는 것이며, 지난 몇 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인상하였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누적된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.
- 우리 대학의 수업료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 것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위한 학교 측의 설명을 잘 들었음.
-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며,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2.26.(수)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2. 24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